



용주사 진입로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11 화산 용주사



부모은중탑

문화 갈등엔 '상생의 조화' 필요

현대의 욕심으로 채우지 말고 곱게 나이 먹도록 놔두어야 할 곳이 절집이다. 문명의 헛바람을 따돌리고 자연 미학을 간직한 채 늙어가는 절집은 피붙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명산대찰을 찾아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파헤쳐지고 화려하게 분장을 한 가람들을 볼 수가 있다. 세월을 거스르려는 욕심을 덧바르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은 아쉬울 때가 있다.

사람들은 삶이 복잡해질수록 자연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절집에서, 묵은 근심을 풀어버리고자 한다. 도심에서 가까운 용주사를 찾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택지개발붐이 일고 있는 지역이라 잘 못 길을 들어서 헤매느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싶었다. 수원 팔달문 앞에서 용주사로 향하는 버스를 타려고 한 시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 정수리로 내려 내려가는 햇살에, 나른한 몸을 이점표 안내판 아래에 내려놓고, 초고속 인터넷에 익숙한 시간을 나만의 미학 읽기로 바꿔본다.

웅건릉을 지나 용주사 입구로 들어서자 절집으로 이어지는 길가에 오순도순 모여 살던 마을이 사라지고 불도저의 숨겨진 엔진소리만 가득하다. 쭈그리고 앉아 있는 소파와 세간들이 파란 하늘을 망연자실하게 쳐다보고 있다. 절집과 함께 살던 사하촌 사람들의 흔적은 지워진지 오래고, 풍경소리로 귀를 적시는 절집의 고요함마저 누군가 빼앗아가는 느낌이다. 사천왕문 앞에서 막 깨어난 나무들의 파란 웃음을 만날 수 있어서 그나마 산문으로 들어서는 마음이 가벼웠다.

용주사는 조계종 2교구 본사로 당파싸움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 정조대왕이 능사로 창건했다. 불교가 탄압받을 시기에 140여 채나 되는 사찰규모로 볼 때 용주사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엿볼 수 있다. 정조의 부모님을 향한 애절한 효심은 <부모은중경>을 통해 세기를 뛰어 넘어 우리 마음에 와 닿는다. 정조가 현몽원을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으로 이장하고 보경스님을 도총섭으로 하여 사찰을 중수한 후 낙성식을 하게 되었다. 그 날 정조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꾸어 용주사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대웅전 앞에 정조가 심었다는 회양목은 오랜 세월 사철 푸른 잎을 피워 올리느라 몸이 쇠약해져 나보다. 정조의 효심으로 지금까지 용주사 뜰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용주사는 지금 까치고개와 송산리·안녕리 마을 주민들과 개발로 인한 갈등에 휩싸여 서로 고립되어 가고 있다.

사하촌이 태안3지구 택지지구로 선정되어 보상에 들어간 2004년, 용주사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야기가 개발됐다. 만년제라는 도 문화재가 있는데, 정조시대의 저수지이다. 문화재 300m 안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데 주택개발공사가 그런 상황을 모르고 고층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을 올렸고 경기도가 2003년 승인을 해줬다. 용주사가 그 사실을 알고 주택공사에 개발 이의를 제기하자 주택공사는 용주사

옆 2만4000평을 공원화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용주사는 문화재 보호지구로 지정을 해 36만 평을 전부 '효 공원'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본을 들여 만들어 놓으면 자손들에게 좋은 문화유산을 물려 줄 수 있겠지만, 기하학적인 세원으로 공원을 만들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에 의해 마을 형성

최근 택지개발로 절·주인 갈등

문화재 보호지구 지정 '효 공원화'에

"보호정책에 일방적 희생 강요" 반박

주장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만년제는 인공적으로 파놓은 호수이고 그 옆에 인공섬이 하나 있었다. 웅건릉은 대한민국의 명당자리로 소문난 곳이다.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형국이라는 뜻을 지닌 땅인데, 만년제가 여의주라고 사찰에서는 주장하고, 주민대표는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능 옆 야트막한 까치 동산을 풍수지리학적으로 안전이라 하여 여의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잘못 지정된 문화재 앞에서 정조실록에 나와 있는 자료가 갈등의 고리를 풀어줄 것인지 의문이다.



태안3지구 택지지구

던 땅이라며 지나버린 시간을 되돌아보되니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 "뜰없이 문화재는 어떤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보호되어야 하는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보호정책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집과 사하촌의 문화 갈등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용주사=김삼미(수필가·본지 객원기자)

부모은중경

역불정책 폄하된 정조 '부모은중경'에 감동 용주사 불사 원 세워

정조대왕도 역대왕들과 마찬가지로 역불정책을 폄하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 초기부터 궁실에서 빈번하게 지어왔던 원당사찰 건립을 중지시켰던 정조가 어떻게 전 국민이 동참하는 불사에 용주사 건립 뜻을 세웠을까. 다름 아닌 보경스님께 들은 불경 <부모은중경> 때문이라고 한다. <부모은중경>은 크고 깊은 부모의 10가지 은혜에 보답하고자 가르치는 경전이다.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이 컸던 정조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을 것 같다. 첫째 아기를 배에서 수호해 주신 은혜, 둘째는 해산에 임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은혜, 셋째는 자식을 낳고서야 근심을 잊으시는 은혜, 넷째는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시는 은혜, 다섯째는 진저리 마른자리 가려 누이시는 은혜, 여섯째는 젖을 먹여 기르시는 은혜, 일곱째는 더러워진 몸을 깨끗이 씻어 주시는 은혜, 여덟째는 먼 길을 떠났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 아홉째는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감히 짓는 은혜, 열째는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말한다. 정조가 <부모은중경>을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했는지 용주사의 유물에서 쉽게 읽을 수가 있다. 용주사 건물들에 걸린 많은 주련들은 정조가 당대의 명 문장가인 이덕무에게 쓰도록 했다고 한다. 우리 자랑거리인 효사상과 경로사상이 문화유산으로 깊이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총무원에 공개요구한다

- 4·8 봉축행사를 앞두고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봉축위원장으로 추대되어 활동하고 있는 진명스님을 거부하고 총무원에서 일방적으로 주지직무대리를 임명하는 처사는 도저히 우리들 신도로서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총무원 스님들에 대한 경칭을 생략하겠다.
- 지난 4월 20일 제주불교신도대표 10명이 총무원을 방문하여 정중하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우리신도들의 탄원은 일체묵살하고 총무원의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임명한 주지직무대리를 즉각 철회하라.
- 총무원 방문시 스님들이 종헌중법대로 한다고 하기에 우리는 관련종헌중법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종헌중법을 유린하고 위반하는 것은 중앙선관위원회와 총무원이었다.
- 총무원은 제23교구 산중총회의 진명스님 주지선출을 인정하고 관음사가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 현재의 관음사 혼란과 비정상화사태는 총무원 당국이 자초한 것이다.
- 만약 끝내 우리의 요구를 무시외면하고 관음사를 파행으로 물고간다면 우리는 제주 불교의 본산이요, 제주전통문화의 중심인 관음사를 제주도민과 더불어 자주적으로 수호할 것이다.

제주불교 교권수호와 청정승가 외호를 위한 제주불자연합

- 공동위원장 김신형(관음사 신도회 회장)
- 문인중(제주불교문화대학총동문회 회장)
- 강원희(관음사거사림 회장)
- 오웅천(제주불교문화대학 초대회장)
- 하맹사(제주불교신도회 대표)